



영국 DB형 퇴직연금 슈퍼펀드 도입배경 및 과제

김혜란 연구원

영국의 DB형 퇴직연금 보유자산은 약 1조 5천억 파운드¹⁾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. 이에 연금협회는 DB형제도를 통합하는 모형을 발표하였으며, 슈퍼펀드는 이러한 통합모형 중 하나임. 슈퍼펀드는 자문·관리·자산·거버넌스를 통합한 단일 기업 및 체계로서 고용주가 미래 연금급여 지급 의무로부터 자유로우며, 높은 투자수익률·리스크 관리 강화·낮은 비용 면에서 buyout보다 유리함. 지난 3월 DB형 퇴직연금의 최초 상업적 통합기관인 Pension SuperFund가 출범하였으며, 6월에 첫 거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. 아직 통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바 향후 규정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하며 올해 말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

■ 영국의 DB형 퇴직연금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지속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¹⁾

- DB형 퇴직연금 대부분이 신규 가입자 또는 신규 적립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²⁾ 약 1,050만 명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, 보유자산은 약 1조 5천억 파운드³⁾로 영국 GDP의 75%에 해당함
- 현재 시스템에서 DB형 퇴직연금은 소규모화, 고용주의 연금급여 보장이 안되면 보장실패라는 인식, 급여의 경직성 등으로 안전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됨
 - 대부분의 DB형 퇴직연금이 가입자 수 및 자산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고,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에 자산·부채가 집중되어 있음³⁾
 - 현재 시스템은 고용주가 지급능력이 있어 온전하게 연금급여를 보장하면 성공한 것이고, 고용주가 납부 또는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지급불능에 처하여 연금보호기금(Pension Protection

1) Department for Work & Pension(2018, 3, 19), "Protecting 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"

2) DB형 퇴직연금에서 12%만이 신규 가입자를 받아들이고 있음(Pension Protection Fund, *Purple Book 2017*)

3) 가입자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2,056개의 DB형 퇴직연금이 존재하며, 전체 DB형 자산 및 부채 중 해당 DB형의 자산과 부채의 비중이 약 1% 정도임. 이에 반해 가입자 10,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208개의 DB형 퇴직연금이 존재하며, 해당 유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는 전체 DB형 자산 및 부채의 62% 정도임(Department for Work & Pension 2017)

- Fund 이하 ‘PPF’)에 의해서 연금급여액의 80%만이 보전되면 실패한 경우에 속함
- 대부분의 고용주가 연금급여액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연장 등 연금 제공 비용의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액 조정이 경직되어 있음
- 실제로 지난 10년간 고용주들은 DB형 퇴직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1,200억 파운드를 썼으며, 2017년엔 9개월 동안 130억 파운드를 지출함으로써 연금운용 부담이 매우 컸음

■ 연금협회(Pensions and Lifetime Savings Association)는 DB형제도를 통합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, Superfund(이하 ‘슈퍼펀드’)는 이러한 통합모형 중 하나임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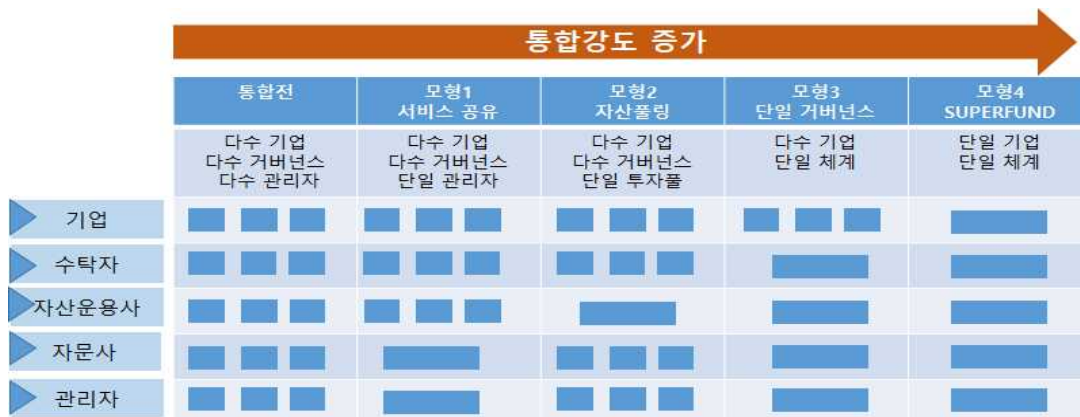
- DB형제도 통합모형은 관리 및 자문 서비스 공유(모형 1), 단순한 자산통합(모형 2), 거버넌스 통합(모형 3) 그리고 고용주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부채까지 완전 통합하는 슈퍼펀드(모형 4)의 형태가 있음
 - 슈퍼펀드는 기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흡수하고 대체하는 형태로, 근본적으로 모형 1~3과 다름
 - 모형 1~3은 기존 법체계하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음
- 슈퍼펀드는 자본화를 통해 벤처투자 등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, 높은 투자수익률·리스크 관리 강화·낮은 비용 등으로 buyout⁵⁾보다 유리함
- 슈퍼펀드는 가입자·고용주·통합기관·규제기관에 다음과 같은 이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
 - 가입자들은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개선되고, 고용주의 지급능력 개선으로 직업 안정을 보장받게 됨
 - 고용주들은 슈퍼펀드 가입비용이 buyout의 비용보다 적고, 부채 리스크 및 변동성 제거, 관리 등의 통합으로 인해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, 연금급여액 지급이라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움
 - 통합기관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고 이를 통한 사업모형 혁신이 가능함
 - 규제기관은 통합으로 인해 감시해야 할 DB 유형이 감소함에 따라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음⁶⁾

4) Pensions and Lifetime Savings Association(2017), “DB Taskforce The Case For Consolidation”

5) buyout은 고용주는 비용을 보험회사 등에 지불하고 부채 및 자산 모두를 완전 양도하면, 보험회사 등이 피용자에게 급부를 지급하는 거래임

6) Pensions and Lifetime Savings Association(2017)

〈그림 1〉 DB제도 통합모형



자료: Pensions and Lifetime Savings Association(2017)

■ Pension SuperFund는 올해 3월 DB형 퇴직연금의 최초 상업 통합기관으로 5억 파운드를 출자 받아 출범했으며⁷⁾, 6월에 1천만 파운드를 Pension SuperFund에 유치하는 첫 거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⁸⁾

- Pension SuperFund의 설립은 정부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 통합을 장려하는 백서⁹⁾ 배포 후 발표됨
 - 3월 19일 정부에서는 상업적 통합기관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 변경 협의 이행 등을 약속함
 - Pension SuperFund는 사모펀드인 Warburg Pincus와 Disruptiv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으며, 연금펀드·고용주·자문사들과 DB형 퇴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하여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논의를 하고 있음
- 상업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1천만 파운드를 Pension SuperFund에 유치하기 위한 규제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음
 - Pension SuperFund는 적립금이 약 200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
 -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DB 유형을 통합할 때마다 연금감독청(The Pensions Regulator)¹⁰⁾에 자발적 허가(voluntary clearance)라고 알려진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

7) IPE(2018. 3. 21), “Ex-PPF chief Rubenstein to lead DB consolidator ‘superfund’”

8) FT(2018. 6. 11), “UK’s first pension consolidator prepares debut deal”

9) Department for Work & Pension(2018. 3. 19)

10) 1995년 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퇴직연금 감독기관인 OPRA(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 Authority)는 2004년 연금법에 의하여 TPR(The Pension Regulator)로 대체됨(고용노동부(2007), 「영국의 퇴직연금 감독체계」)

-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Pension SuperFund의 거래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규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하며 올해 말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
- 슈퍼펀드가 기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잘 흡수하고 고용주가 연금적립금 이전이 용이하도록 비용 면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안을 마련하고 슈퍼펀드의 연금급여지급 구조를 간소해야 함
- 슈퍼펀드에 대한 자본완충장치 및 지급여력기준 등 재무건전성 및 감독 규정이 제정되어야 함
 - 슈퍼펀드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주기적인 재무건전성 평가와 함께 자본완충장치가 마련되어야 함
 - 영국보험협회는 슈퍼펀드가 건전성감독청(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) 대신 연금감독청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엄격한 지급여력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
- 슈퍼펀드가 투자에 실패하거나 적정 자본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PPF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조율이 필요함
 - 슈퍼펀드가 PPF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되어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, 슈퍼펀드의 규모가 큰 경우 청구 금액이 커져 PPF에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PPF 위원회에 제출됨 [kiri](#)